

김호기의 ‘사회의 눈’



지리산을 생각한다

지난 주에 지리산에 갔다 왔다. ‘지리산 프로젝트 2014 : 우주·예술·집’이 마련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였다. 남원 실상사에 들러 전시를 보고 산청 성심원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남원에서 함양을 거쳐 산청으로 가면서 바라본 지리산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장엄했다.

어릴 적엔 산이 왜 좋은지 잘 몰랐다. 우리나라와 자연 조건이 다른 독일에서 5년 공부하고 미국에서 2년 연구하는 동안 우리 산아의 아름다움을 생각해보게 됐다. 특히 지리산을 포함한 우리 산들은 자연에 대한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했다.

지리산은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넓은 산이다.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백두대간의 종착지이자, 최근엔 설악산으로 향하는 백두대간 산행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구례 화엄사가 보여주듯 귀족적인 교종의 거점이자, 남원 실상사와 곡성 태안사가 보여주듯 민중적인 선종의 무대였다. 고려시대에는 민간

과 왜구 침략의 역사적 현장이기도 했다. 지리산은 조선 시대에 들어와 그 의미가 더욱 커졌다. 지리산 동쪽 산청에 은거한 남명 조식과 지리산 서쪽 구례에서 1910년 순국한 매천 황현은 특히 잊을 수 없는 이들이다.

“그것이 어찌 지리산만 하겠소. 하늘이 울어도 울리지 않는다고”라고 지리산과 같은 굳은 의지를 소망한 조식으로부터 지식인의 태도를 배우게 됐고,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옛일을 돌이켜보니, 문자 안다는 사람 인간되기 어렵구나”라는 절명시를 남긴 황현으로부터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돌아보게 됐다.

해방 이후 지리산은 한국전쟁의 비극적 현장이었다. 또, 지리산의 동과 서는 지역주의로 나누게 됐다. 이런 지리산을 최근 다시 발견하게 한 것은 지리산 둘레길이다. 지리산 둘레길은 문명화된 ‘도로’를 거부하고 자연 속의 ‘길’을 걷게 함으로써 길과 자연, 삶과 사회를 새롭게 성찰하게 한다.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것은 초전박살, 속전속결, 일망타진으로 특징 지어지는

압축 성장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품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속도의 숭앙에 대한 적극적 거부, 지나친 경쟁의 논리에 대한 방어적 거부가 둘레길 걷기 열풍에 담긴 문화적 코드다.

이렇듯 지리산은 여러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역사로서의 지리산은 민족을 발견하게 하고, 정치로서의 지리산은 상생을 발견하게 하며, 사회로서의 지리산은 길과 삶을 발견하게 한다. 바로 이런 민족, 상생, 길과 삶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다름 아닌 ‘생명’, 죽음이 아닌 ‘살림’이다.

지리산에 오면 지리산이 우리에게 거는 말은 바로 생명의 삶, 생명의 사회를 열어가라는 ‘살림의 재발견’이라. 그리고 이 살림에는, 인간이든 자연이든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살림’, 국민 다수의 가계 및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살림’, 사회를 돌로 나누는 분열을 넘어서는 통합으로서의 ‘살림’이라는 세 겹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명과 살림에는 중심과 주변이 없다는 점이다.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같음과 연대를 추구하는 게 생명의 윤리이자 살림의 철학이다.

봉우리와 계곡, 산길과 들길, 실상사의 불교와 성심원의 천주교가 공존하는 곳이 지리산이다. 천왕봉만이 지리산의 주인공이 아니다. 남원, 장수, 구례, 곡성, 함양, 산청, 하동에서 만나게 되는 산과 물, 나무와 숲, 사람과 마을 모두가 지리산의 주인들이다.

누구나 경협하듯 지리산을 찾았을 때와 떠날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이유는 지리산에 담긴 생명과 살림의 의미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깨닫는 데 있을 것이다.

‘지리산 프로젝트 2014’는 11월 2일까지 남원 실상사, 산청 성심원, 하동 삼화 에코하우스 등에서 다양한 공공예술을 펼쳐 보인다. 지난 주에 보니 초록의 지리산은 서서히 단풍의 지리산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남원에서 임천강과 경호강을 따라 산청으로 오는데 지리산은 내게 산처럼, 물처럼 살아가라고 말을 건네고 있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종교칼럼



김 연 준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록도봉당 주임신부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만, 겸손한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을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희생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종교인은 많지만, 참된 신앙인은 적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느님을 참되게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 쉬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느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

남께서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성종)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수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요한복음 4,10)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해서 왜 신앙인들의 삶은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며 욕심에 눈이 멀고, 두려움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알았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마태복음 23,27)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사람들은 구원되기를 원하지만 죄에서 구원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죄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빈곤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질병

으로부터,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 아닌 현 세상의 영광을 원합니다.

또한 구원되기를 원하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르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속으로 외치는 선언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부자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결에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성 바오로께서 심판과 악의 포기에 관해서 말할 때 펠릭스는 ‘다음 기회’에 듣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자신의 방식으로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미워하다’가 아닙니다.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이용하다’입니다. 하느님을 내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 결정적인 신앙의 왜곡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 하느님을 이용

하는 사람과, 하느님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주님께로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회생은 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밋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보려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그 생명을 갈망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너는 나를 부요하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그 부를 청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자비롭다고 하면서도 너를 나에게 맡기지 않는다.

너는 나를 의로운 분이라고 하면서도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꾸짖더라도 나를 비난하지 말라.

기 고

독서의 향기



이 진 영 화이건설 부회장

황국단풍(黃菊丹楓)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오르는 10월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며 서서히 깊은 가을로 접어드는 요즘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옛 선비들은 이 좋은 날이면 서재에서 꺼낸 책을 햇볕에 쬌어 말리며 책을 가까이했다. 중국 당나라의 시인으로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기도 한 한유(韓愈)는 아들 성남에게 독서를 권하는 시를 지어 보냈다. ‘시추 적우재(時秋 積雨霽 - 때는 가을이라 장맛비도 가시고)/ 신랑 입교하(新

涼入郊墟-서늘한 바람이 마을에 가득하다)/ 등화 초기전(燈火 稍可親-이제 등불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간편 가서권(簡編 可舒卷-책을 펼쳐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책을 가장 많이 본 인물로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꼽을 수 있다. 세종은 ‘눈이 아프도록’ 책을 읽어 부국강병의 기틀을 마련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하일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日不讀書 口中生荊棘-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이라며 독서를 권장했다.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책을 보면 꿈을 이룬다는 말이 있다. 책을 펴면 만 가지의 복이 열린다고도 한다. 고급을 살펴보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 내가 아는 사회 선배 한 사람은 미수에 가까운 나이지만 “몸은 다리부터 약해진다”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평지 등산과 걷기 운

동으로 건강을 지키면서 도 책을 잡기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또 쉬지 않고 글을 쓴다. 독서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분의 삶이 존경스러울 정도다.

평생 책을 가까이 해오며 나름대로 ‘독서의 비결’도 터득했다. 먼저, 출판된 지 3년 이내인 책은 구입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어떤 책에 대한 평판이 나오려면 적어도 3년은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고자 하는 책은 목차와 서문, 편집후기 그리고 저자약력은 꼭 읽어봐야 한다. 셋째, 백과사전과 인명사전, 용어사전 등 분야별 전문사전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독서를 즐기는 사람은 당연히 글쓰기도 함께해야 한다. 글은 다른 사람이 읽어야 의미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읽기 쉽고 간단명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장은 짧아야 하고, 지나친 강조나 번잡한 형용사는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 또, 불필요한 절삭사나 조사는 남용하지 말고, 주어와 목적어 등은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서문에 전체 문장의 요지를 상세히

쓰지 말아야 한다. 결론 부분에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담거나, 본분을 요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말 어순은 중요한 것이 뒤에 나오게 된다. 문장은 건축물과 같은 것이니 기승전결을 잘 지켜야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신문의 사설이나 대가들이 쓴 문장을 본뜨는 것도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이다.

일본 동경역전에 ‘북센터’란 책방이 있다. 일본 제일의 건설회사인 가시마건설이 운영하는 곳이다. 1970년대에 생긴 서점인데 이 서점에는 일본에서 발견되는 책은 모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서점 저 서점을 필요 없이 이곳에만 가면 원하는 책을 찾아 볼 수 있다. 이곳 은 4층까지가 서점이고 6층은 열람실이다. 여기에는 도시락을 먹어가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서점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다. 우리 집, 우리 마을이 ‘독서하고 글 쓰는’ 인문의 충전소가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른들의 조금 빨리 가려고 하는 무단횡단이 바로 내 자녀, 이웃어린이의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행위임을 깨닫고 도로를 건널 때는 항상 주위를 살피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건너가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의 희망들이 어릴 적부터 올바른 교통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

▲김도연·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社 說

민선자치 주민참여 막는 규제 혁파해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다 돼지 만 자치단체의 방만한 행정, 인사 및 재정권 남용, 무리한 투자 등이 되풀이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감시와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갖가지 규제 때문에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자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전남 시·군에서는 180명 이상 이면 가능하며 연대서명과 함께 주민등 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민번호 노출을 극도로 꺼려 청구 서류를 제대로 갖추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제도가 첫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전남도에는 고작 5건만 접수됐고, 그나마 3건은 각하됐다.

주민이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발 의제도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서명 하도록 한 지방자치 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남의 경우 이를 충족시키려면 1만5381명 이상이여야 가능하다. 지난 15년간 청구 건수가 단 3건에 그칠 만큼 실적이 부진한 이유다.

지난 2007년 단체장의 전횡과 권력 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 소환제도 역시 투표율(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높아 지난해 구례를 포함해 5차례 모두 투표율조차 열여섯이 못해 무산됐다.

지방자치법이나 주민투표법 등을 통해 보장된 주민 참여 권한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요구’를 억제한다는 명분 아래 곳곳에 ‘독소 조항’을 설정해놓기 때문이다.

주민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 만든 ‘반쪽짜리’ 주민참여제도들은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가로 막는 큰 요인이다.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1000대 기업 25개 뿐인 암담한 지역경제

지난해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기업은 25개 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3 전국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광주 11개 사, 전남 14개 사 등 25개 사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2012년 27개(광주 12, 전남 15)보다 2개가 감소한 것이다. 또 전년 100대 기업에 든 현대삼호중공업(97위)이 지난해 113위로 추락해 광주·전남엔 100대 기업을 찾아 볼 수 없다.

1000대 기업에 포함된 이 지역 기업 수가 줄고 향후 전망도 밝아질 게 없다는 점에서 지역 기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영남은 100대 기업 10개, 1000대 기업이 177개나 되며, 충청권 역시 100대 기업 3개, 1000대 기업 74개로 호남 36개와는 대조적이다. 유일한 기대라던 을 연발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전(매출 2위)과 한전KPS(306위), 한전KDN(816위) 등 3개 회사라 할 수 있다.

일정 규모를 갖춘 대기업이 극소수라는 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리 만무하고 인구 유출과 지역 낙후의 악순환만 가져올 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유망 대·중기업의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지역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노사문화의 선진화, 저렴한 부지와 인센티브 제공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된 유인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 중요한 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다. 호남과 같이 낙후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호남경제의 활성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無 等 鼓

‘신나게 뜨겁게 터트려라’는 카피를 달았던 영화가 있다. 조승우·신민아 주연의 영화 ‘고고 70’(2008년)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1970년대 청춘들의 이야기가 고고장 등을 배경으로 유쾌하게 그려진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고고장을 찾은 장발과 나팔 바지 차림의 젊은 남녀들은 신나는 밤송에 맞춰 몸을 사정 없이 흔들어댄다. 영화에 등장하는 그룹 사운드 ‘대블스’의 흥겨운 연주에 맞춰 춤을 추는 청춘들의

춤을 취요

들의 갈라 콘서트와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곳곳에 마련된 먹거리 장터에서는 음식을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모습들이다.

차 없는 금남로 거리를 걷는 데, 사람들의 합성이 끊이지 않는다. DJ가 선곡한 신나는 음악에 맞춰 사람들은 춤을 추는 중이다. 이듬하여 추억의 고고장이다.

점잖아 보이는 중년의 아저씨도, 산에 다녀온 듯한 50~60대 여성들도, 주름살 깊은 할아버지

고생도, 대학생 커플도 손을 치켜들고 동참한다.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다기 바쁘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무엇보다 지켜 보는 이나, 춤추는 이나 그 곳에 모인 모든 사람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다들 너무 행복해 보였다.

365일 힘들지 않은 날이 있겠는가. 며칠만이라도 근심, 걱정 모두 잊고 금남로에서 신나게 춤을 춰 보자. 세상에서 가장 큰 고고장은 일요일까지 당신을 기다린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무단횡단 예방, 어른이 먼저 모범보여야

주말 휴일을 맞아 모처럼 근처 공원을 찾았다. 횡단보도쪽으로 가는데, 불쑥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시민을 보았다. 조금만 가면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도로를 어린 자녀의 손을 이끌고 무단횡단 하는 무책임한 부모들을 볼 때마다 위험해 보이

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심지어는 유모차를 끌고 무단 횡단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한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아이들 행동을 보면 부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교훈의식도 마찬가지다. 부모들의 무단 횡단을 보고 자란 자녀는 그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 할 수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단횡단 하는 것이 습관화 된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교통사고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요즘은 중·고등학생 들이 도로를 무단 횡단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경찰관이 나무라기도 하고 종게 타일러 보기도 하지만 그때 뿐 인 것 같다. 얼굴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다. 이런 모습들은 어른들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대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팅국 222-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